

## 一般常識(일반상식) 사자성어

01. 哈哈大笑(가가대소) 큰 소리로 웃음
02. 加減乘除(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03. 家內均安(가내균안) 집안이 고루 평안함 편지에서 많이 쓰임
04. 街談巷說(가담항설) 길거리나 향간에 떠도는 소리
05. 苛斂誅求(가렴주구)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재물을 빼앗음
06. 佳人薄命(가인박명) 미인은 운명이 기구하고 복이 적음
07. 家傳秘方(가전비방) 그 집안에만 전해오는 약의 비방
08. 刻骨難忘(각골난망) 은혜를 잊지 않고 깊이 새기어 둠
09. 各人各色(각인각색) 사람마다 다름
10. 角者無齒(각자무치) 뿔이 있는 자는 이가 없다는 말로 모두 다 맞고할 수는 없다는 뜻
11. 刻舟求劍(각주구검) 배에 새기어 칼을 찾는다는 말로 어리석음을 뜻함
12. 肝膽相照(간담상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귄
13. 感慨無量(감개무량) 마음에 사무치는 느낌이 한이 없음
14. 甘言利說(감언이설) 남을 욕심나게 하는 달콤한 말
15. 感之德之(감지덕지) 몹시 고맙게 여김
16. 甘香苦吐(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기에게 이로운 일만 함
17. 甲男乙女(갑남을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
18. 甲論乙駁(갑론을박) 서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 남의 의견을 반박함
19. 改過遷善(개과천선) 허물을 고쳐 착하게 됨
20. 開國功臣(개국공신) 나라를 세울 때에 공이 많은 신하
21. 客反爲主(객반위주) 주객이 바뀌다
22. 去頭截尾(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를 자르다. 일의 요점만 말하다.
23. 乾坤一擲(건곤일척) 흥망, 운명을 걸고, 한판 성패를 겨루다.
24. 格物致知(격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후천적인 지식을 밝게 함.
25. 隔世之感(격세지감) 너무 많이 변하여 딴 세상

처럼 느껴짐

26. 牽強附會(견강부회) 조건에 어긋나는 것을 억지로 우겨서 조건에 맞도록 함
27. 見利思義(견리사의) 눈 앞의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먼저 생각 함
28. 犬馬之勞(견마지로) 자기의 노력을 낮추어 일컫는 말
29. 見蚊拔劍(견문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뽑
30. 見物生心(견물생심) 물건을 보고 나면 욕심이 생김
31. 犬猿之間(견원지간) 개와 원숭이의 사이처럼 대단히 사이가 나쁜 관계
32. 結者解之(결자해지) 맺은 사람이 그것을 푼다.
33. 結草報恩(결초보은)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34. 謙讓之德(겸양지덕) 겸손하고 사양하는 미덕
35. 輕舉妄動(경거망동) 경솔하여 분별없이 하는 행동
36. 傾國之色(경국지색) 한 나라안에서 제일 가는 미인
37. 經國之才(경국지재) 나라 일을 경륜할 만한 재주
38. 驚天動地(경천동지) 하늘과 땅을 진동 시킬만큼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
39. 敬天愛人(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
40. 鷄卵有骨(계란유골)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뜻으로, 공교롭게 일이 잘 안될 때를 이르는 말
41. 高官大爵(고관대작) 지위가 높고 훌륭한 벼슬
42. 孤軍奮鬪(고군분투) 수가 적은 군대가 힘에 겨운 적과 용감하게 싸움
43. 高臺廣室(고대광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좋은 집
44. 膏粱珍味(고량진미)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45. 枯木生花(고목생화) 고목에서 꽃이 피듯, 행운을 얻어 잘 되는 일을 말함
46. 古文眞寶(고문진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사람을 비유
47. 高峰峻嶺(고봉준령) 높은 산봉우리와 험한 고개
48. 古色蒼然(고색창연) 오래 되어 옛 풍치가 드러나 보임
49. 苦肉之計(고육지계) 적을 속이기 위하여 제 몸의 괴로움을 돌보지 않고 쓰는 계책

50. 孤掌難鳴(고장난명) 한쪽 손받가만 가지고는 손  
뽕 소리가 나지 않음 혼자서는 일을 못함

51. 苦盡甘來(고진감래) 고생이 다하면 낙이 온다

52. 曲學阿世(곡학아세)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  
로 세속에 아첨하는 것

53. 骨肉相殘(골육상잔) 가까운 혈육끼리 서로 싸우  
고 해침

54. 骨肉相爭(골육상쟁) 동족끼리 서로 싸우다

55. 公明正大(공명정대) 하는 일에 사사로움이 없이  
뽕뽕하고 바름

56. 共存共榮(공존공영) 함께 존재하고 함께 번영함

57. 空中樓閣(공중누각) 공중에 짓는 집처럼 토대가  
없는 사물

58. 公平無私(공평무사)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59. 誇大妄想(과대망상) 사실보다 크게 공상해서, 사  
실과 같이 생각해 버림

60. 過大評價(과대평가) 실제보다는 지나치게 평가  
함

61. 過小評價(과소평가) 실제 이하로 평가함

62. 過猶不及(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  
음

63. 管鮑之交(관포지교) 다정하고 허물이 없는 교제

64. 冠婚喪祭(관혼상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사례  
를 통틀어 이르는말

65. 刮目相對(괄목상대) 주의하여 자세히 봄

66. 矯角殺牛(교각살우) 결점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  
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을 말함

67. 巧言令色(교언영색) 말을 교묘하게 꾸며 하고,  
낯빛을 온화하게 꾸며 가지고 아첨함

68. 教學相長(교학상장) 배우고 가르치며 자기 학업  
을 향상, 계발시킴

69. 九曲肝腸(구곡간장) 굽이굽이 사무치는 마음 속

70. 救國干城(구국간성)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믿  
음직한 군인이나 인물

71. 九死一生(구사일생) 죽을 고비에서 겨우 살아남

72. 九牛一毛(구우일모) 많은 수 중에서 하나

73. 口傳心授(구전심수)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  
침

74. 舊態依然(구태의연)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모습이 꼭 같음

75. 國泰民安(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살  
기 편함

76. 群鷄一鶴(군계일학) 홀로 뛰어난 사람

77. 群雄割據(군웅할거) 많은 영웅들이 제각기 각지  
에 자리잡고 서로 세력을 키움

78. 群眾心理(군중심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개개인(個個人)의 평상적인 심리(心理)를 초월(超越)  
하여 발생(發生)하는 특이(特異)한 심리(心理)

79. 窮餘之策(궁여지책) 몹시 당혹한 나머지 막판에  
떠오르는 하나의 수단이나 계책

80. 權謀術數(권모술수) 목적을 위해 수단을 안가리  
는 온갖 술책

81. 權不十年(권불십년) 권세는 십년을 넘지 못함  
곧 부당하게 잡은 권세는 오래가지 않음

82. 勸善懲惡(권선징악)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행동을 징계함

83. 捲土重來(권토중래) 한번 패하고 세력을 회복하  
여 다시 옴

84. 近墨者黑(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빛  
이 된다.

85. 金科玉條(금과옥조)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야  
할 규칙, 교훈, 법률

86. 金蘭之交(금란지교)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의

87. 錦上添花(금상첨화) 좋고 훌륭한 것을 더욱 좋  
고 훌륭하게 함

88. 今昔之感(금석지감) 지금과 옛적을 비교할 때  
차이가 심하여 일어나는 일

89. 錦繡江山(금수강산) 비단에 수를 놓은 듯이 아  
름다운 강과 산 우리나라의 별칭

90. 今時初聞(금시초문) 지금 처음 들음

91. 錦衣夜行(금의야행)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  
다

92. 錦衣還鄉(금의환향) 벼슬과 명망이 높게되어 고  
향으로 돌아감

93. 金枝玉葉(금지옥엽) 임금의 일가 귀여운 자손을  
이르는 말

94. 急轉直下(급전직하) 사정이 돌변해서 예측불허  
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95. 氣高萬丈(기고만장) 씩씩한 기운을 크게 떨치다

96. 氣骨壯大(기골장대) 기혈과 골격이 굳세고 큼직  
함

97. 奇怪罔測(기괴망측) 기이하고 괴상하여 헤아릴  
수 없음

98. 起死回生(기사회생) 중병으로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살아남

99. 起承轉結(기승전결) 문장의 훌륭한 서식 漢詩(한시)의 구성방식

100. 奇巖怪石(기암괴석) 기이하고 괴상하게 생긴 바위와 돌

101. 氣盡脈盡(기진맥진) 기력이 다 없어짐

102. 騎虎之勢(기호지세) 어떤 일을 착수한 다음, 도중에 그만두려해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을 말함

103. 吉凶禍福(길흉화복) 좋은일과 언짢은일, 화와 복의 총칭

104. 落落長松(낙락장송) 가지가 척척 길게 늘어지고 키 큰 소나무

105. 落井下石(낙정하석) 남의 환난에 다시 위해를 줌

106. 落花流水(낙화유수) 봄 경치가 쇠퇴해 가는 모습

107. 難兄難弟(난형난제) 낯고 못함을 분간하기 어려움

108. 南柯一夢(남가일몽) 일시적인 부귀를 가리킴

109. 內憂外患(내우외환)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우환

110. 怒發大發(노발대발) 몹시 성을 내다

111. 老少同樂(노소동락) 늙은이와 젊은이가 같이 즐긴다

112. 勞心焦思(노심초사) 애를 쓰며 속을 태운다

113. 綠陰芳草(녹음방초) 푸른 나무 그늘과 꽃다운 풀

114. 論功行賞(논공행상) 공(功)이 있고 없음이나 크고 작음을 따져 거기에 알맞은 상을 줌

115. 雷同附和(뇌동부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찬동함

116. 雷聲霹靂(뇌성벽력) 우레 소리와 벼락

117. 累卵之勢(누란지세) 쌓여있는 알처럼 매우 위태로운 형세

118. 多多益善(다다익선) 많을수록 더욱 좋음

119. 多事多難(다사다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음

120. 多才多能(다재다능) 재주와 능력이 많음

121. 多情多感(다정다감) 인정 많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

122. 單刀直入(단도직입) 군말을 빼고 바로 본론을 말하다

123. 斷長補短(단장보단) 긴 것은 자르고 짧은 것은 보충함

124. 堂狗風月(당구풍월)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

람과 같이 있으면 감화를 받음

125. 螳螂拒轍(당랑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뜻으로 제 분수도 모르고 덤빔

126. 大驚失色(대경실색) 몹시 놀라 얼굴빛이 달라짐

127. 大器晚成(대기만성) 크게 될 인물은 큰 종을 만드는 것과 같이 오래 걸림

128. 大同團結(대동단결) 많은 정당이나 복수단체 등이 주의 주장을 극복하고 단결함

129. 大同小異(대동소이) 거의 같은 것

130. 大同之患(대동지환) 여러 사람이 다같이 당하는 환난

131. 大明天地(대명천지) 아주 밝은 세상

132. 大書特筆(대서특필) 아주 크게 써 눈에 확 들어오게 표시함

133. 大逆無道(대역무도) 사람의 도리에 벗어난 막된 행위

134. 大義名分(대의명분) 사람이 지켜야 할 정의와 명분

135. 徒勞無功(도로무공) 헛되게 수고만 하고 보람이 없음

136. 道聽塗說(도청도설) 길거리의 풍설

137. 獨不將軍(독불장군) 혼자 잘난 척 뽐 내다가 고립된 처지에 있는 사람

138. 讀書三昧(독서삼매) 오직 책읽기에만 골몰하는 일

139. 獨宿空房(독숙공방) 홀로 빈방에서 잠

140. 獨也靑靑(독야청청) 홀로 푸르름

141. 同價紅裳(동가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142. 同苦同樂(동고동락) 고생과 즐거움을 같이 함

143. 棟梁之材(동량지재) 나라에 중임을 맡을 만한 인재

144. 東問西答(동문서답) 엉뚱한 대답

145. 同病相憐(동병상련) 처지가 비슷한 사이끼리 서로 동정하다

146. 東奔西走(동분서주) 사방으로 바쁘게 다님

147. 同床異夢(동상이몽) 한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다

148. 冬扇夏爐(동선하로) 겨울부채와 여름의화로 때에 맞지 않아 쓸모 없음을 말함

149. 同姓同本(동성동본) 성도 같고 관행도 같음

150. 同族相殘(동족상잔)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움

151. 杜門不出(두문불출)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  
 152. 燈下不明(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153. 燈火可親(등화가친) 가을밤은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좋다  
 154. 馬耳東風(마이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다  
 155. 莫無可奈(막무가내) 어찌 할 수 없음  
 156. 莫上莫下(막상막하) 낮고 못함이 없음  
 157. 莫逆之交(막역지교) 서로 허물없이 아주 친한 벗  
 158. 莫逆之友(막역지우) 매우 친한 친구  
 159. 萬頃蒼波(만경창파) 끝없이 넓은 큰 바다  
 160. 萬古江山(만고강산) 한없는 세월에도 변함없는 강과 산  
 161. 萬古絕色(만고절색) 한없이 아름다운 미인  
 162. 萬古千秋(만고천추) 천만 년의 오랜 세월(歲月)이나 영원(永遠)한 세월(歲月)  
 163. 萬古風霜(만고풍상) 오랜 동안에 겪어온 수많은 고난  
 164. 萬事如意(만사여의)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됨  
 165. 萬壽無疆(만수무강) 아무 탈 없이 오래 삶  
 166. 晚時之歎(만시지탄) 시기에 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167. 滿身瘡痍(만신창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됨  
 168. 茫茫大海(망망대해) 한없이 넓고 큰 바다  
 169. 茫然自失(망연자실) 뉘이 빠져서 멍해진 모습 맥이 빠져서 멍하니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양  
 170. 孟母斷機(맹모단기) 어떤 일이나 공부하는 도중에 그만두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교훈  
 171. 孟母三遷(맹모삼천) 자신의 교육에는 주위 환경이 대단히 중요함을 뜻함  
 172. 明明白白(명명백백)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음  
 173. 名山大川(명산대천) 이름난 산과 큰 내  
 174. 名實相符(명실상부) 그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함  
 175. 明若觀火(명약관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176. 目不識丁(목불식정)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꾼  
 177. 目不忍見(목불인견)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178. 無窮無盡(무궁무진) 끝과 다함이 없음  
 179. 無根之說(무근지설) 근거없는 말. 낭설  
 180. 無念無想(무념무상)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181. 武陵桃源(무릉도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별천지  
 182. 無味乾燥(무미건조) 맛이 없고 재미가 없음  
 183. 無法天地(무법천지) 법이 없는 천지  
 184. 無病長壽(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도록 삶  
 185. 無不通知(무불통지) 무슨 일이든 모르는 것이 없음  
 186. 無事安逸(무사안일)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한가로움  
 187. 無常出入(무상출입) 아무 데나 언제든지 구애 없이 출입함  
 188. 務實力行(무실역행)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쓰고 실행함  
 189. 無用之物(무용지물) 쓸데 없는 물건  
 190. 無爲徒食(무위도식) 하는 것 없이 한갓 먹기만 함  
 191. 無依無托(무의무탁) 의지할 곳도 없고 부탁할 곳도 없음  
 192. 無人孤島(무인고도) 사람이 살지 않은 외딴 섬  
 193. 無人之境(무인지경) 사람이 전혀 없는 지경  
 194. 無主空山(무주공산) 인기척이 없는 쓸쓸한 산. 임자가 없는 산  
 195. 無知莫知(무지막지) 매우 무지하고 우악스러움  
 196. 無知沒覺(무지몰각) 무지하고 지각이 없음  
 197. 無知蒙昧(무지몽매)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두움  
 198. 無害無得(무해무득) 해로울 것도 없고 이로운 것도 없음  
 199. 默默不答(묵묵부답) 입을 다문 채 대답하지 아니함  
 200. 文房四友(문방사우) 종이, 붓, 베풀, 먹, 일컫음  
 201. 聞一知十(문일지십)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는 뜻으로 총명함을 가리킴  
 202. 門前成市(문전성시) 권세가가 되어 집 문앞이 방문객으로 시장을 이룬다는 말  
 203. 門前沃畝(문전옥답) 집 앞에 가까이 있는 기름진 논  
 204. 門戶開放(문호개방) 제한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는 것  
 205. 美辭麗句(미사여구) 아름다운 말과 화려한 글귀  
 206. 美風良俗(미풍양속) 아름답고 좋은 풍속

207. 薄利多賣(박리다매) 적은 이익만 남기고 많이 판매함  
 208. 拍掌大笑(박장대소)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다  
 209. 博學多識(박학다식) 학문이 넓고 식견이 많음  
 210. 反目嫉視(반목질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봄  
 211. 反覆無常(반복무상) 말과 행동이 자주 달라짐  
 212. 半信半疑(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함  
 213. 半身不隨(반신불수)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는 증상, 또는 그런 사람  
 214. 拔本塞源(발본색원) 폐해가 되는 근본을 없애 버림  
 215. 坊坊曲曲(방방곡곡) 한 군데도 빠짐 없이 여러 곳  
 216. 傍若無人(방약무인) 말과 행동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함  
 217. 配達民族(배달민족) 역사상으로 우리 겨레를 일컫는 말. 배달 겨레.  
 218. 背水之陣(배수지진) 강이나 바다를 배후에 두고 진을 치  
 219. 背恩忘德(배은망덕) 은덕을 잊고 배반 함  
 220. 白骨難忘(백골난망) 깊이 은덕을 느낌  
 221. 百年佳約(백년가약)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아름답게 지내자는 언약  
 222. 百年大計(백년대계) 먼 장래를 내다보는 원대한 계획  
 223. 百年之客(백년지객) 처가에서 사위를 두고 하는 말  
 224. 百年河清(백년하청) 아무리 기다려 봐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  
 225. 百年偕老(백년해로) 부부가 화락하여 함께 늙음  
 226. 白面書生(백면서생) 책만 읽고 세상 일에 어두운 사람  
 227. 百發百中(백발백중) 예측한 것이 꼭꼭 들어맞음.  
 228. 白髮星星(백발성성) 머리털이 희끗희끗 함  
 229. 百藥無效(백약무효) 온갖 약이 다 효험이 없음  
 230. 白衣民族(백의민족) 흰옷을 입는 민족, 즉 우리 한민족을 일컫음  
 231. 百戰老將(백전노장)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이

232. 百戰百勝(백전백승) 싸울 때 마다 이김  
 233. 百尺竿頭(백척간두) 몹시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에 빠짐  
 234. 百八煩惱(백팔번뇌) 인간의 온갖 번뇌를 말함  
 235. 百害無益(백해무익)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음  
 236. 變化無雙(변화무쌍) 변화함이 끝없이 능란하여 알 수가 없음  
 237. 兵家常事(병가상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있는일 실패를 낙심하지 말자  
 238. 富國強兵(부국강병)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대를 만들  
 239. 父母俱存(부모구존) 부모가 다 살아 계심  
 240. 父傳子傳(부전자전)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함  
 241. 不正腐敗(부정부패) 바르지 못하고 썩어 문들어 짐  
 242. 不知其數(부지기수)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음  
 243. 附和雷同(부화뇌동) 아무 비판 없이 남의 말에 따른다  
 244. 北風寒雪(북풍한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찬 눈  
 245. 粉骨碎身(분골쇄신) 전력을 다하여 간고(어렵고 괴로움)와 싸움  
 246. 焚書坑儒(분서갱유) 진시황이 시서육경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매장한 사건  
 247. 不可思議(불가사의)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음  
 248. 不可抗力(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음  
 249. 不勞所得(불로소득) 일하지 아니하고 얻는 이익  
 250. 不毛之地(불모지) 초목이 나지 않은 거친 땅  
 251. 不問可知(불문가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음  
 252. 不問曲直(불문곡직) 이치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함부로 행동함.  
 253. 不遠千里(불원천리) 천 리를 멀다고 여기지 아니함  
 254. 不撤晝夜(불철주야) 밤이나 낮이나  
 255. 不恥下問(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  
 256. 不偏不黨(불편부당)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태도

257. 非一非再(비일비재) 한 두 번만이 아님  
 258. 四顧無親(사고무친) 친척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로움  
 259. 私利私慾(사리사욕) 자기개인의 이익과 욕심  
 260. 四面楚歌(사면초가) 주위에 모두 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 뿐임  
 261. 四面春風(사면춘풍) 늘 낮빛을 온화해가 하여 사람들을 대함  
 262. 四分五裂(사분오열) 여러 갈래로 갈갈이 찢어짐  
 263. 砂上樓閣(사상누각) 모래에 세워진 누각의 뜻으로 기반이 허약함  
 264. 死生決斷(사생결단) 죽고 삶을 돌아보지 않음  
 265. 四書五經(사서오경) 유교의 중요한 고전  
 266. 四時長春(사시장춘) 늘 한결같이 잘 지냄  
 267. 四時春風(사시춘풍) 늘 낮빛을 온화하게 하여 사람을 대함  
 268. 四通五達(사통오달) 사방으로 왕래할 수 있는 편리한 곳  
 269. 四通八達(사통팔달)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  
 270. 事必歸正(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된다.  
 271. 山紫水明(산자수명) 산수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  
 272. 山戰水戰(산전수전) 세상 일에 경험이 많음  
 273. 山海珍味(산해진미) 맛있는 음식을 가리킴  
 274. 殺身成仁(살신성인) 남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다  
 275. 三綱五倫(삼강오륜) 유교의 도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들  
 276. 森羅萬象(삼라만상) 우주의 온갖 사물과 모든 현상  
 277. 三三五五(삼삼오오) 이삼인, 또는 사 오인씩 흠어져 있다.  
 278. 相扶相助(상부상조) 서로서로 도움  
 279. 桑田碧海(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바다가 됨, 세상의 변천이 심함  
 280. 塞翁之馬(새옹지마) 인간의 길흉화복의 변화가 무상하다  
 281. 生老病死(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282. 生面不知(생면부지) 본적 없는 사람

283. 生者必滅(생자필멸)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만고 불변의 진리  
 284. 先見之明(선견지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밝은 지혜  
 285. 先公後私(선공후사) 공사를 먼저하고 사사를 뒤에 함  
 286. 雪泥鴻爪(설니홍조) 눈위의 기러기 발자국 인 생무상을 비유  
 287. 雪上加霜(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리다  
 288. 說往說來(설왕설래) 말이 오고가고 함  
 289. 纖纖玉手(섬섬옥수) 가늘고 연약한 여자의 고운 손  
 290. 聖人君子(성인군자) 덕과 지혜와 학식이 뛰어나 남의 존경을 받는 사람  
 291. 小貪大失(소탐대실) 작은 이익을 욕심 내어서 큰 이익을 잃음  
 292. 束手無策(속수무책) 어찌 할 방책이 없어 꼼짝 못 하다  
 293. 速戰速決(속전속결) 속히 싸워서 속히 끝장을 냄  
 294. 率先垂範(솔선수범) 여러 사람에게 앞장서서 모범을 보임  
 295. 送舊迎新(송구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다  
 296. 首丘初心(수구초심) 고향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다  
 297. 袖手傍觀(수수방관) 몸소 손을 대지 않고 곁에서 보고만 있음  
 298. 修身齊家(수신제가) 자신과 가정을 잘 꾸려 나감  
 299. 水魚之交(수어지교)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  
 300. 守株待兔(수주대토) 부질 없이 옛날의 관습에 얽매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  
 301. 壽則多辱(수즉다욕) 너무 오래 살면 욕되는 일이 많다  
 302. 唇亡齒寒(순망치한) 입술과 이빨의 관계처럼 두 나라 중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망하게 된다는 말  
 303. 乘勝長驅(승승장구) 거리낌없이 이겨 나아감  
 304. 時機尙早(시기상조) 어떤 일을 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뜻  
 305. 時代錯誤(시대착오) 시대 인식이 늦음 시대의 경향에 맞지 않음

306. 是是非非(시시비비) 옳고 그름  
 307. 始終一貫(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여 변하지 않음  
 308. 識字憂患(식자우환) 학식이 많으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되다.  
 309. 信賞必罰(신상필벌) 상벌을 공정히 하다  
 310. 身言書判(신언서판) 사람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  
 311. 新陳代謝(신진대사) 새 것과 묵은 것이 바뀜  
 312. 身體髮膚(신체발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몸 전부  
 313. 神出鬼沒(신출귀몰) 출몰이 자유자재하여 귀신 같다  
 314. 實事求是(실사구시) 사실에 토대로 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일  
 315. 心機一轉(심기일전) 어떤 일을 계기로 기분이 아주 달라짐  
 316. 深思熟考(심사숙고) 깊이 생각하고 익히 고찰함  
 317. 深山幽谷(심산유곡) 깊은 산 으슥한 골짜기  
 318. 十匙一飯(십시일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일은 쉽다.  
 319. 阿鼻叫喚(아비규환) 많은 사람이 참상으로 부르짖는 소리  
 320. 我田引水(아전인수) 자기 눈에 물대기. 내게 좋게 해석을 함  
 321. 惡戰苦鬪(악전고투)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이겨내며 모질게 노력함  
 322. 顏面不知(안면부지) 얼굴을 모르는 사람  
 323. 眼鼻莫開(안비막개) 너무 바빠서 눈코 뜰새 없음  
 324. 安貧樂道(안빈낙도) 가난한 삶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지냄  
 325. 眼下無人(안하무인) 거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326. 哀乞伏乞(애걸복걸)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원함  
 327. 曖昧模糊(애매모호) 분명하지 아니하고 희미함  
 328. 愛之重之(애지중지) 매우 사랑하여 중히 여기다  
 329. 弱肉強食(약육강식)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먹힘  
 330. 羊頭狗肉(양두구육)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  
 331. 陽春佳節(양춘가절) 따뜻하고 좋은 봄철  
 332. 養虎遺患(양호유환) 호랑이 새끼를 길러 후에

화를 입는다는 뜻  
 333. 魚頭肉尾(어두육미) 생선은 머리부분이 맛있고 짐승은 꼬리 부분이 맛있다.  
 334. 漁父之利(어부지리)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득을 봄  
 335. 語不成說(어불성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  
 336. 言語道斷(언어도단)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할래야 할 수 없음  
 337. 言中有骨(언중유골) 예사로운 말 속에 깊은 속 뜻이 있음  
 338. 言行一致(언행일치) 말과 행실이 일치되다.  
 339. 嚴冬雪寒(엄동설한) 눈이 오고 몹시 추운 겨울  
 340. 嚴父慈母(엄부자모)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341. 緣木求魚(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듯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함을 비유  
 342. 五里霧中(오리무중) 오리나 낀 안개 속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343. 寤寐不忘(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함  
 344. 鳥飛梨落(오비이락) 의심받기 쉽다는 뜻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  
 345. 吳越同舟(오월동주) 적의를 품은 자들이 한자리를 함  
 346. 烏合之卒(오합지졸)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이 조직 없이 모여든 무리  
 347. 玉石俱焚(옥석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다 같이 재난을 입는다는 뜻  
 348.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앎  
 349. 臥薪嘗膽(와신상담) 쉼 위에서 자고, 쓸개를 맛보다  
 350. 完全無缺(완전무결) 완전하여 조금도 결함이 없음  
 351. 外柔內剛(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한 듯 보이나 속은 꾀악하고 굳음  
 352. 搖之不動(요지부동) 흔들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음  
 353. 龍頭蛇尾(용두사미)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의 비유  
 354. 用意周到(용의주도) 마음의 준비가 두루 미처 빈틈이 없음  
 355. 龍虎相搏(용호상박) 강한 두 세력이 승부를 겨룸

356. 愚公移山(우공이산) 어떤 일이든지 끈기 있게 노력을 기울이면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는 뜻  
 357. 迂餘曲折(우여곡절) 여러 가지로 뒤엎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  
 358. 右往左往(우왕좌왕) 어떤 일을 결정짓지 못하고 망설임  
 359. 優柔不斷(우유부단) 결단력이 없음  
 360. 牛耳讀經(우이독경) 소귀에 경 읽기  
 361. 雨後竹筍(우후죽순) 비가 내린 후에 많은 죽순이 생겨나는 것과 같이 사물이 늘어나는 것  
 362. 遠交近攻(원교근공) 먼 나라와 손을 잡고 가까운 나라를 공략하는 정책이나 전략  
 363. 危機一髮(위기일발) 대단히 위험함  
 364. 有口無言(유구무언) 변명이나 항변할 말이 없음  
 365. 柔能制剛(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함  
 366. 有名無實(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음  
 367. 有備無患(유비무환) 충분히 준비되면 근심 재난이 없다  
 368. 唯我獨尊(유아독존) 이 세상(世上)에 나보다 존귀(尊貴)한 사람은 없다는 말  
 369. 流言蜚語(유언비어) 근거가 없이 떠도는 말  
 370. 類類相從(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내왕하며 사귀  
 371. 唯一無二(유일무이)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  
 372. 隱忍自重(은인자중) 견디고 참아서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음  
 373. 泣斬馬謖(읍참마속)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버림  
 374. 意氣銷沈(의기소침) 의욕을 잃고 기가 꺾임  
 375. 意氣揚揚(의기양양) 뜻대로 되어 자랑하는 모양  
 376. 意味深長(의미심장) 말이나 글의 뜻이 깊다  
 377. 異口同聲(이구동성) 여러 사람의 말이 일치함  
 378. 以卵擊石(이란격석) 계란으로 바위치기. 지극히 약한 것으로 지극히 강한 것을 치면 반드시 실패함을 이룸  
 379. 以實直告(이실직고) 실상대로 고함  
 380. 以心傳心(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다  
 381. 以熱治熱(이열치열)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  
 382. 已往之事(이왕지사) 이미 지나간 일  
 383. 二律背反(이율배반) 서로 모순, 대립하여 양립

하지 않는 두 명제  
 384. 泥田鬪狗(이전투구) 명분이 서지 않는 일로 몰골 사납게 싸움  
 385. 利害得失(이해득실) 이롭고 해로움과 얻고 잃음  
 386. 利害打算(이해타산) 이될지 해될지를 헤아림  
 387. 因果應報(인과응보) 사람이 짓는 선악에 응하여 과보가 있음.  
 388. 人面獸心(인면수심) 겉모양은 사람이나 속마음은 짐승과 같다.  
 389. 人事不省(인사불성) 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음  
 390. 人山人海(인산인해) 사람이 헤어릴 수 없이 많이 모인 상태.  
 391. 仁義禮智(인의예지) 인간이 갖고 있는 네가지 덕을 말함  
 392. 仁者無敵(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음  
 393. 人之常情(인지상정) 사람이라면 가지는 보통의 마음이나 생각  
 394. 一舉兩得(일거양득) 한가지 일을 하여 두가지 이익을 얻음  
 395. 一口二言(일구이언) 한입으로 두 말을 함.  
 396. 一網打盡(일망타진) 한꺼번에 모조리 잡다.  
 397. 一脈相通(일맥상통) 어느 면에 있어 서로 통함  
 398. 一目瞭然(일목요연) 한번 보아 환히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함  
 399. 一罰百戒(일벌백계) 여러 사람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일  
 400. 一絲不亂(일사불란) 질서나 체계 따위가 정연하여 조금도 어지럽거나 혼란이 없는 모습  
 401. 一瀉千里(일사천리) 일이 지체없이 진행된다.  
 402. 一石二鳥(일석이조) 돌팔매 한번에 두 마리 새를 잡음  
 403. 一勝一敗(일승일패) 한 번 이기고, 한번 패함  
 404. 一心同體(일심동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뜻을 합함  
 405. 一魚濁水(일어탁수) 하남리의 고기가 물 전체를 흐려 놓음  
 406. 一言半句(일언반구) 매우 짧은 말 한마디.  
 407. 一言之下(일언지하) 말 한마디로 끊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함. 두말할 나위 없음  
 408. 一日三秋(일일삼추) 무척 애타우며 기다리다.  
 409. 一長一短(일장일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음



410. 一場春夢(일장춘몽) 인생의 영화가 잠시의 꿈 처럼 덧 없다.

411. 一朝一夕(일조일석) 짧은 시간

412. 一進一退(일진일퇴) 한번 나아가고 한번 물러남

413. 一觸即發(일촉즉발) 곧 폭발할 것 같이 위험한 상태.

414. 日就月將(일취월장) 날로 달로 진보하여 감.

415. 一波萬波(일파만파) 극히 작은 일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416. 一片丹心(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참된 마음

417. 一攫千金(일확천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다

418. 一喜一悲(일희일비) 기쁜일과 슬픈일이 번갈아가며 일어남

419. 臨機應變(임기응변) 때와 일에 따라서 적당히 처리함.

420. 臨戰無退(임전무퇴) 싸움터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음

421. 立稻先賣(입도선매) 벼가 자라고 있는 중에 파는 것

422. 立身揚名(입신양명) 출세하여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드날리게 함.

423. 自家撞着(자가당착) 말의 뜻이 앞뒤가 서로 어긋남

424. 自強不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쉬지 않음

425. 自激之心(자격지심) 제가 한일에 스스로 미혹한 생각을 함

426. 自古以來(자고이래)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427. 自給自足(자급자족)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생산하여 충당함

428. 自問自答(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함

429. 子孫萬代(자손만대) 자자손손

430. 自手成家(자수성가)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 재산, 살림을 이룸

431. 自繩自縛(자승자박) 자기가 저지른 일로 자기가 괴로움을 당한다.

432. 自業自得(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업을 자기가 받음.

433. 自然淘汰(자연도태)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살아 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사멸하는 현상.

434. 自中之亂(자중지란) 같은 패 속에서 싸움이 일어남

435. 自初至終(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정

436. 自他共認(자타공인) 자기나 남이 다같이 인정함

437. 自暴自棄(자포자기) 절망 사태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여 돌아보지 아니함

438. 自畫自讚(자화자찬)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

439. 作心三日(작심삼일) 결심이 오래 못감.

440. 張三李四(장삼이사)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

441. 賊反荷杖(적반하장)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

442. 赤手空拳(적수공권) 맨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

443. 適者生存(적자생존)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외계의 상태나 변화

444. 適材適所(적재적소)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씀

445. 電光石火(전광석화) 매우 빠르다.

446. 前代未聞(전대미문) 이제 까지 들은 적이 없음

447. 全力投球(전력투구) 온 힘을 다하여 힘씀

448. 前無後無(전무후무) 고금을 통하여 없음

449. 全心全力(전심전력) 온 힘을 다하여 힘씀

450. 戰戰兢兢(전전긍긍) 대단히 두려워 함.

451. 轉禍爲福(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복이 되다.

452. 切磋琢磨(절차탁마) 학문에 더욱 힘쓰는 것을 말함

453. 切齒腐心(절치부심) 대단히 분해하고 원망함

454. 漸入佳境(점입가경) 들어갈수록 재미가 있음

455. 頂門一鍼(정문일침) 정수리에 놓는 침. 곧 따끔한 충고를 이르는 말.

456. 正正堂堂(정정당당) 꼴림이 없이 바르고 떳떳함

457. 濟世安民(제세안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458. 朝令暮改(조령모개)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

459. 朝變夕改(조변석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자주 뜯어 고침

460. 朝三暮四(조삼모사) 감언으로써 남을 우롱함.

461. 早失父母(조실부모) 어려서 부모를 여임.

462. 鳥足之血(조족지혈) 새발의 피 즉, 아주 보잘 것이 없이 적음

463. 種豆得豆(종두득두) 콩 심은데 콩 난다.  
 464. 縱橫無盡(종횡무진) 자유자재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함.  
 465. 左顧右盼(좌고우면) 여기저기 돌아봄  
 466. 坐不安席(좌불안석) 침착하지 못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함  
 467. 左之右之(좌지우지) 마음대로 처치함  
 468. 左衝右突(좌충우돌) 사방으로 치고 받다  
 469. 主客顛倒(주객전도) 주인과 객의 입장이 바뀜  
 470. 晝耕夜讀(주경야독)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다.  
 471. 走馬加鞭(주마가편) 근면 성실한 사람을 더욱 잘 하도록 권장함.  
 472. 走馬看山(주마간산) 사물의 겉만을 대강 보고 지남  
 473. 晝夜長川(주야장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달음 . 계속  
 474. 酒池肉林(주지육림) 술로써 못을 이루고 고기로써 숲을 이룸  
 475. 竹馬故友(죽마고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476. 衆寡不敵(중과부적) 적은 수로써 많은 무리를 대적하지 못함.  
 477. 衆口難防(중구난방) 여러사람의 말은 막기가 어렵다.  
 478. 重言復言(중언부언) 반복하여 말함  
 479. 中庸之道(중용지도)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평범한 속에서 진실한 도리  
 480. 指鹿爲馬(지록위마)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함  
 481. 至誠感天(지성감천) 지성이면 하늘이 감동하여 뜻대로 됨  
 482. 遲遲不進(지지부진) 몹시 더더서 잘 나아가지 않음  
 483. 知彼知己(지피지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兵法家(병법가)의 말  
 484. 紙筆硯墨(지필연묵) 종이,붓,벼루,먹의 네가지를 말함  
 485. 知行合一(지행합일) 앎은 行動(행동)하는 것의 시작이고 행동하는 것은 람의 진실이다.  
 486. 珍羞盛饌(진수성찬) 맛 좋고 많이 차린 음식  
 487. 進退兩難(진퇴양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함  
 488. 此日彼日(차일피일) 오늘내일 하면서 연기한다

는 뜻  
 489. 天高馬肥(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다.  
 490. 千年一清(천년일청) 불가능한 일을 바람  
 491. 千萬多幸(천만다행) 매우 다행함.  
 492. 天方地軸(천방지축) 너무 바빠서 두서를 잡지 못하고 허둥댐.  
 493. 千辛萬苦(천신만고) 갖은 애를 쓰며 고생함  
 494. 天壤之差(천양지차) 사물이 서로 엄청나게 다름.  
 495. 天佑神助(천우신조) 하늘과 신의 도움  
 496. 天人共怒(천인공노)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만큼 증오스러움  
 497. 千載一遇(천재일우) 천년에 한번 만날 정도로 지극히 드문 기회  
 498. 天災地變(천재지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나 괴변  
 499. 天地開闢(천지개벽) 자연계나 사회의 큰 변동을 비유하는 말  
 500. 天真爛漫(천진난만) 거짓과 꾸밈이 없이 마음 먹은 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501. 千態萬象(천태만상) 모든 사물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함  
 502. 千篇一律(천편일률) 똑같아 변함이 없다.  
 503. 徹頭徹尾(철두철미) 머리에서 꼬리까지 투철함  
 504. 疊疊山中(첩첩산중) 중첩한 산중  
 505. 靑山流水(청산유수) 말을 거침없이 잘하는 모양이나 그런 말을 비유  
 506. 靑天霹靂(청천벽력) 마른하늘의벼락 즉, 예상밖의 재난에 비유  
 507. 靑出於藍(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일컫는 말  
 508. 淸風明月(청풍명월) 초가을 밤의 상쾌한 느낌. 깨끗한 밤바람과 달빛  
 509. 草根木皮(초근목피) 풀뿌리와 나무의 껍질 흉년이 들어 겨우 연명할 때 사용함  
 510. 草綠同色(초록동색) 같은 처지의 무리끼리 어울림  
 511. 初志一貫(초지일관) 처음 세운 뜻을 바꾸지 않고 계속 행함.  
 512. 秋風落葉(추풍낙엽)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낙엽처럼 勢力(세력)같은 것이 떨어짐의 비유  
 513. 忠言逆耳(충언역이) 충고는 듣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

514. 取捨選擇(취사선택) 쓸 것과 버릴 것을 가림.  
 515. 七顛八起(칠전팔기) 몇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않고 분투함.  
 516. 針小棒大(침소봉대) 사물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  
 517. 快刀亂麻(쾌도난마) 잘 드는 칼로 헝크러진 삼을 치듯이 어지러운 일을 시원하게 처리함  
 518. 他山之石(타산지석) 남의 반대나 욕설은 도리어 자기의 知德(지덕) 을 닦는데 도움이 된다.  
 519. 卓上空論(탁상공론) 실천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  
 520. 坦坦大路(탄탄대로) 평탄한 큰 길  
 521. 貪官污吏(탐관오리) 재물을 탐내며 마음 깨끗하지 못한 관리  
 522. 泰山北斗(태산북두) 태산과 북두칠성처럼 뚜렷하여 존경받는 사람  
 523. 泰山峻嶺(태산준령) 높고 험한 고개  
 524. 泰然自若(태연자약) 안색이 천연스러운 것  
 525. 太平聖代(태평성대) 현명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시대.  
 526. 波瀾萬丈(파란만장) 물결의 기복이 몹시 심한 것처럼 사건의 진행에도 변화가 심함  
 527. 破顏大笑(파안대소) 즐거운 표정으로 한 바탕 크게 웃음  
 528. 破竹之勢(파죽지세) 기세 좋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  
 529. 八道江山(팔도강산) 우리나라 전도의 산수  
 530. 平地風波(평지풍파) 뜻 밖에 쟁투가 일어남을 가리키는 말  
 531. 抱腹絕倒(포복절도) 배를 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몹시 웃음  
 532. 暴虐無道(포악무도) 성질이 포악하고 도리에 어긋남.  
 533. 表裏不同(표리부동) 마음이 음충맞아서 겉과 속이 다름  
 534. 風樹之嘆(풍수지탄) 부모에 효도를 하려해도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없다는 뜻  
 535. 風前燈火(풍전등화) 바람 앞의 등불. 즉, 위험스런 지경  
 536. 皮裏春秋(피리춘추) 제각기 속셈과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있음  
 537. 必有曲折(필유곡절) 반드시 사유가 있음  
 538. 夏爐冬扇(하로동선)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

채처럼 쓸모 없는 사물을 가리킴  
 539. 下問不恥(하문불치)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수치스런 것이 아님  
 540. 下厚上薄(하후상박)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하게 함  
 541. 鶴首苦待(학수고대) 몹시 기다리다.  
 542. 漢江投石(한강투석) 한강에 돌을 던지다.  
 543. 緘口無言(함구무언)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음  
 544. 咸興差使(함흥차사) 심부름을 간 뒤에 아무 소식이 없다.  
 546. 虛無孟浪(허무맹랑) 거짓되어 터무니 없음  
 547. 虛送歲月(허송세월) 하는 일 없이 세월만 헛되이 보냄  
 548. 虛心坦懷(허심탄회) 거리끼지 않고 숨김이 없는 마음  
 549. 虛虛實實(허허실실) 서로 꾀를 다하여 적의 실을 피하고 허를 타서 싸움  
 550. 孑孑單身(혈혈단신) 의지할 곳 없는 홀몸  
 551. 螢雪之功(형설지공) 반딧불과 눈빛에 독서를 하여 성공한다는 것.  
 552. 形形色色(형형색색) 모양과 종류가 다른 가지가지  
 553. 狐假虎威(호가호위) 남의 권세를 빌어 위세를 부림에 비유  
 554. 互角之勢(호각지세) 서로 조금도 우열이 없는 위세  
 555. 糊口之策(호구지책) 먹고 살아갈 대책  
 556. 好事多魔(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생기기 쉬움  
 557. 虎死留皮(호사유피) 사람은 죽은 후에라도 이름을 세상에 남겨야 함을 이르는 말  
 558. 虎視眈眈(호시탐탐) 날카로운 눈으로 고요히 형세를 돌아봄  
 559. 浩然之氣(호연지기) 공명 정대한 마음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용기  
 560. 好衣好食(호의호식) 잘 입고 잘 먹음  
 561. 豪華燦爛(호화찬란) 호화하고 찬란함  
 562. 惑世誣民(혹세무민) 세상 사람을 속여 마음을 어지럽히다.  
 563. 魂飛魄散(혼비백산) 몹시 놀라 정신이 없다.  
 564. 渾然一體(혼연일체) 차별이나 균열도 없이 하나로 됨.  
 565. 弘益人間(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함

566. 和氣靄靄(화기애애) 화한 기운이 가득 차 있음  
 567. 畫龍點睛(화룡점정) 사물의 가장 요긴한 요점을 말함  
 568. 和而不同(화이부동) 자기의 개성을 지켜가면서 남과 잘 화합해 나가는 것  
 569. 畫中之餅(화중지병) 그림의 떡  
 570. 換骨奪胎(환골탈태) 얼굴이나 모습이 이전에 비하여 몰라보게 좋아짐  
 571. 惶恐無地(황공무지) 대단히 황송한 것  
 572. 黃金萬能(황금만능) 돈만 있으면 만사를 뜻대

로 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573. 荒唐無稽(황당무계) 터무니 없고 근거가 없음  
 574. 會者定離(회자정리)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는 말  
 575. 橫說豎說(횡설수설) 조리 없이 말을 하는 것  
 576. 後悔莫及(후회막급) 후에 뉘우쳐도 어찌할 수가 없음  
 577. 喜色滿面(희색만면)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함  
 578. 喜喜樂樂(히히낙락)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 함.

동의대 도서관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도움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룸 또는 ‘환난이 거듭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유유상종(類類相從): 사물은 같은 무리끼리 따르고, 같은 사람은 서로 찾아 모인다는 뜻

이열치열(以熱治熱):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으로, 힘으로 또는 강한 것에는 강한 것으로 상대함을 이르는 말

초록동색(草綠同色): 풀빛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란 뜻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과 어울리거나 기우는 것

사필귀정(事必歸正): 처음에는 시비곡직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감 (결국 모든 일은 바른 결과로 돌아간다는 의미)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 볼 정도로 바뀐 것. 세상의 모든 일이 엄청나게 변해버린 것

새옹지마(塞翁之馬): 세상만사는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재앙도 슬퍼할 게 못되고 복도 기뻐할 것이 아님을 이르는 말, 인생의 길흉화복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음을 이르는 말

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뺏음

환골탈태(換骨奪胎): 용모가 환하고 아름다워 탄 사람처럼 됨

자중지란(自中之亂): 같은 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부화뇌동(附和雷同):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함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가 자기를 망치게 한다는 뜻. 즉, 자기의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되는 일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음

일진일퇴(一進一退): 한 번 나아감과 물러섬, 좋아졌다 나빠졌다 함

오리무중(五里霧中):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상황을 알 길이 없음, 일의 갈피를 잡기 어려움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다라는 뜻으로, 어림짐작으로 사물을 알아내려 함을 이르는 말

점입가경(漸入佳境): 가면 갈수록 경치가 더해진다는 뜻으로, 일이 점점 더 재미있는 지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과대망상(誇大妄想): 턱없이 과장하여 엉뚱하게 생각함

기고만장(氣高萬丈): 일이 뜻대로 되어 나가 씩씩한 기운이 대단하게 뻗침

구우일모(九牛一毛): 아홉 마리 소에 털 한 가닥이 빠진 정도라는 뜻으로, 아주 큰 물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물건, 대단히 많은 것 중의 아주 적은 것의 비유

능소능대(能小能大):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임기응변으로 잘 처리 해냄

침소봉대(針小棒大):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 만하다고 말함이란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말함

진퇴양난(進退兩難):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

일진일퇴(一進一退): 한 번 나아감과 물러섬, 좋아졌다 나빠졌다 함

갑론을박(甲論乙駁): 갑이 논하면 을이 논박한다는 뜻으로, 서로 논란하고 반박함을 이르는 말

양자택일(兩者擇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

탁상공론(卓上空論): 탁자 위에서만 펼치는 헛된 논설이란 뜻으로,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을 일컬음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림을 이름

안하무인(眼下無人): 태도가 몹시 거만하여 남을 사람같이 대하지 않는 것

막무가내(莫無可奈):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 고집이 너무 세거나 무조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경우

함구무언(緘口無言):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이 없음

부화뇌동(附和雷同):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

조변석개(朝變夕改): 아침, 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자주 바꾸는 것을 이름

청출어람(靑出於藍):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개과천선(改過遷善):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어 착하게 됨

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

백년대계(百年大計):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먼 뒷날까지 걸쳐 세우는 큰 계획

고식지계(姑息之計):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계책, 당장의 편안함만을 꾀하는 일시적인 방편

갑론을박(甲論乙駁): 갑이 논하면 을이 논박한다는 뜻으로, 서로 논란하고 반박함을 이르는 말

공평무사(公平無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

동문서답(東問西答): 동쪽을 묻는 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으로, 묻는 말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대답

천재일우(千載一遇): 천 년에 한 번 만날 정도로, 좀처럼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름

백년하청(百年河淸): 백 년을 기다린다 해도 황하의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로운 것을 앎. 온고이지신과 같은 의미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름

일장춘몽(一場春夢): 인생의 허무함을 한바탕의 봄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결초보은(結草報恩): 무슨 짓을 하여서든지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함

흥진비래(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

안빈낙도(安貧樂道):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도를 즐김

반신반의(半信半疑):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림

전전긍긍(戰戰兢兢): 어떤 위기감에 떠는 심정을 비유하는 말

허장성세(虛張聲勢): 헛된 목소리의 기세만 높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으면서도 허세로만 떠벌림

자격지심(自激之心): 자기가 일을 해놓고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안분지족(安分知足): 자기 분수에 만족하여 다른데 마음을 두지 아니함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음

동병상련(同病相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도움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의 주장에 맞도록 함

천양지차(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만큼 엄청난 차이

각골지통(刻骨之痛): 뼈를 깎는 아픔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

유일무이(唯一無二):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 단 하나밖에 없다는 뜻

진퇴유곡(進退維谷):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거나 물러서지 못한다는 뜻

절차탁마(切磋琢磨):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

전인미답(全人未踏):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대거나 발을 디딘 일이 없음

호구지책(糊口之策): 입에 풀칠하듯이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

후안무치(厚顏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워 할 줄을 모름

절치부심(切齒腐心):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힌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무위도식(無爲徒食):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함

풍찬노숙(風餐露宿): 떠돌아다니며 고생스러운 생활을 함을 비유하는 말

비분강개(悲憤慷慨): 슬프고 분한 느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음

맥수지탄(麥秀之嘆): 고국의 멸망을 안타까워함

망양지탄(亡羊之歎): 달아난 양을 찾다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길을 잃었다는 의미. 방침이 많아 할 바를 모르게 됨

후생가외(後生可畏): 뒤에 난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장하므로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그 진보는 선배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말.



후회막급(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음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로운 것을 앎.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과 같은 의미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의미로,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함

일거양득(一舉兩得): 한가지의 일로 두 가지의 이득을 보는 것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화룡점정(畫龍點睛):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

절치부심(切齒腐心):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히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憤)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요지부동(搖之不動): 흔들어도 꿈적도 하지 않음

오불관언(吾不關焉):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함

삼고초려(三顧草廬): 초가집을 세 번 찾아감. 훌륭한 인물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음. 잘못이 분명해 변명하거나 해명할 길이 없음

지기지우(知己之友):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미워하면서도 공통의 어려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에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꿈. 즉 겉으로는 같은 입장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의견이나 주장이 다른 사이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이구동성(異口同聲): 입은 다르지만 하는 말은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

갑론을박(甲論乙駁): 갑이 주장을 하고 을이 반박을 한다는 뜻으로 서로 논란하고 반박함

설왕설래(說往說來): 말들이 왔다 갔다 함. 즉 의견이나 입장이 달라 말로 옥신각신하는 모습

중구난방(衆口難防): 여러 사람이 각기 말하는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옴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문자나 언어 없이 남을 깨닫게 한다는 말

기호지세(騎虎之勢): 범에 올라탄 기세. 즉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

고립무원(孤立無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서 있음

혈혈단신(孑孓單身): 의지할 데라곤 없이 오직 자신뿐인 외롭고 고독한 사람.

사고무친(四顧無親): 사방을 둘러 봐도 의지할만한 사람이 도무지 없다는 뜻

진퇴유곡(進退維谷):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거나 물러서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궁지(窮地)에 빠진 상태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음. 잘못이 분명해 변명하거나 해명할 길이 없음.

청천벽력(靑天霹靂): 맑게 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라는 뜻으로, 돌발적인 사태나 사변을 이르는 말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잡혀서 삶아진다는 뜻.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목적에 이용된 도구나 사람은 무용하게 되어 배척되거나 제거된다는 의미.

비분강개(悲憤慷慨): 의롭지 못한 일이나 잘못되어 가는 세태가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침

침소봉대(針小棒大): 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크게 부풀려 허풍을 떠는 모습.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거나 안타까운 모습

수수방관(袖手傍觀): 소매에 손을 넣고 곁에서 보기만 한다는 뜻으로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을 뜻함

각골통한(刻骨痛恨): 뼈에 새겨 놓을 만큼 잊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원한.

기사회생(起死回生):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남.

표리부동(表裏不同): 겉과 안이 같지 않음. 즉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품성.

경거망동(輕舉妄動):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함. 즉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의미

선견지명(先見之明): 미래에 전개될 일을 남보다 먼저 예견하는 총명함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식자우환(識字憂患): 글자를 아는 것이 걱정을 끼친다는 말. 너무 많이 알기에 쓸데없는 걱정도 그만큼 많은 뜻

시시비비(是是非非): 옳고 그름을 알아보는 것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동가홍상(同價紅裳):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기왕에 같은 조건이면 보기 좋은 것을 골라 가진다

동문서답(東問西答): 동쪽에서 묻자 서쪽에서 답한다. 즉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음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서로 동정한다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의 교감을 말한다.

동분서주(東奔西走):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

동상이몽(同床異夢): 한자리에 자면서 꿈을 다르게 꾸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함.

이왕지사(已往之事): 이미 지나간 일.

자포자기(自暴自棄): 절망에 빠져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돌아보지 않음.

만시지탄(晩時之歎): 때늦은 탄식. 이미 기회를 잃은 후 한탄하는 모습.

진퇴양난(進退兩難): 나아가기도 물러서기도 둘 다 어렵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워 입장이 곤란함.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에 있어서의吉凶禍福(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

허장성세(虛張聲勢): 비어 있고 과장된 형세로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

수주대토(守株待兔):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실효성 없는 기대는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우연한 행운 또는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어리석음

안하무인(眼下無人):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사람됨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천려일실(千慮一失): 천 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실책이란 뜻으로,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다보면 하나쯤 실수가 있게 마련

자가당착(自家撞着): 스스로 부딪치기도 하고 붙기도 함.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포위되거나 몹시 어려운 일을 당하여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곤경

기사회생(起死回生): 죽거나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힘을 내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

삼십육계(三十六計): 도망가야 할 때에는 기회를 보고 무조건 도망을 쳐서 몸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 병법상의 최상책이라는 뜻

혼비백산(魂飛魄散): 넋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지다라는 뜻으로, 몹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모름

이란투석(以卵投石):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게 덤비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한 것

두문불출(杜門不出):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음. 즉 집에만 박혀 있으면서 결코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모습.

가인박명(佳人薄命): 아름다운 여인은 목숨이 짧다.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즉 결코 변하지 않을 충성되고 참된 마음.

독야청청(獨也靑靑):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 모습을 지키는 굳은 절개를 가리키는 말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 제가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 고향이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미워하면서도 공통의 어려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되레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만큼 좋게 변한 것을 비유하는 말.

온고지신(溫故知新): 지나간 과거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다.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즐겁고 좋은 일이 오기 마련

괄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학식이나 재주가 놀라운 정도로 부쩍 향상되었다는 뜻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는 말인데, 꼭 10년이 아니라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해 결국은 무너진다는 의미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꿈. 즉 겉으로는 같은 입장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의견이나 주장이 다른 사이

오리무중(五里霧中): 사방 오 리를 덮은 안개 속이란 뜻으로, 사물의 행방 또는 사태의 추이를 전혀 알 수 없다

내우외환(內憂外患):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란 뜻으로,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근심걱정을 이르는 말

명재경각(命在頃刻):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 즉 목숨이 눈 깜짝할 동안에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사고무친(四顧無親): 사방을 돌아봐도 친한 이가 없다. 의지할 데가 없이 외롭고 고단한 상태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

각골통한(刻骨痛恨): 뼈에 새겨 놓을 만큼 잊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원한.

물아일체(物我一體): '자연물과 자아가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문자나 언어 없이 남을 깨닫게 한다는 말.

진퇴양난(進退兩難): 나아가기도 물러서기도 둘 다 어렵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워 입장이 곤란함.

천우신조(天佑神助):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긴 일이 이루어지거나, 힘든 상황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는 경우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척 장대의 꼭대기. 백 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매달려 있을 정도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좌고우면(左顧右盼):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함. 즉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눈치만 살피는 모습.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라는 뜻으로, 아무 허물없이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

절치부심(切齒腐心):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사무쳐 이를 딱딱거리며 갈고 속을 썩이다.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서로 동정한다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의 교감

자화자찬(自畫自讚):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함.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가 칭찬함.

감언이설(甘言利說): 입에 발린 말과 이익을 약속하는 말. 즉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꾸민 달콤한 말과 이득을 내세워 속이는 말.

임기응변(臨機應變): '어떤 일을 당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변통하다'라는 뜻으로,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

대경失色(大驚失色): 너무 크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

전전긍긍(戰戰兢兢):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서로 동정한다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의 교감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여 잠 못 들거나 근심 또는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것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문자나 언어 없이 남을 깨닫게 한다는 말.

조변석개(朝變夕改):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친다. 아침에 내린 명령이나 법령을 저녁에 다시 고치듯,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뜯어고치는 것

풍수지탄(風樹之嘆): 바람이 나무를 흔들 듯, 자식이 효도하려 할 때 부모는 이미 죽어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슬픔

각골통한(刻骨痛恨): 뼈에 새겨 놓을 만큼 잊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원한.

구사일생(九死一生):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사필귀정(事必歸正):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

순망치한(唇亡齒寒):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림. 즉 서로 의지하고 있어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쪽도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관계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하려 함

좌불안석(坐不安席):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

간담상조(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어 봄. 즉 서로 마음속을 드러내며 나누는 우정

전전반측(輾轉反側): 수레바퀴가 한없이 돌며 옆으로 뒤척인다는 뜻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

침소봉대(針小棒大): 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크게 부풀려 허풍을 떠는 모습

절치부심(切齒腐心):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히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혼비백산(魂飛魄散): 넋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지다라는 뜻으로, 몹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모름

경거망동(輕舉妄動): 가벼운 거동과 망령된 행동.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행동

동분서주(東奔西走):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

분기탱천(憤氣撐天):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되레 매를 든다는 뜻.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다.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즐겁고 좋은 일이 오기 마련

내우외환(內憂外患): 안으로는 걱정이요, 밖으로는 근심. 즉 사방에 온통 걱정거리뿐임

맥수지탄(麥秀之嘆): 기자가 은나라가 망한 후에도 보리만은 잘 자람을 보고 한탄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름.

사생결단(死生決斷):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덤벼듦

생사기로(生死岐路):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

함구무언(緘口無言):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이 없음.

중언부언(重言復言):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함.

중구난방(衆口難防):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

이실직고(以實直告): 사실 그대로 알림.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를 이루지 못하다. 즉, 말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음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음. 잘못이 분명해 변명하거나 해명할 길이 없음.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함. 즉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일관성이 없는 것.

중구난방(衆口難防):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

진퇴양난(進退兩難):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둘 다 어렵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

횡설수설(橫說豎說): 가로로 말했다 세로로 말함. 조리가 없는 말을 되는데로 이러쿵저러쿵 지껄임.

각골통한(刻骨痛恨): 뼈에 새겨 놓을 만큼 잊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원한.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전전반측(輾轉反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을 비유

풍수지탄(風樹之嘆): 바람이 나무를 흔들 듯, 자식이 효도하려 할 때 부모는 이미 죽어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슬픔.

후회막급(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음.

기호지세(騎虎之勢): 범에 올라탄 기세. 즉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함. 즉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우후죽순(雨後竹筍): 비가 온 뒤에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일시에 많이 일어남을 이르는 말.

혼비백산(魂飛魄散): 넋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지다라는 뜻으로, 몹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모름

비육지탄(髀肉之歎):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

견문발검(見蚊拔劍):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을 세움 혹은 조그만 일에 화를 내는 소견이 좁은 사람을 이름

명약관화(明若觀火): 불을 보는 것 같이 밝게 보인다는 뜻으로 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함

일촉즉발(一觸即發): 한 번 닿기만 하여도 곧 폭발한다는 뜻으로 조그만 자극에도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이르는 말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음

타산지석(他山之石):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기의 지덕을 닦는 데 도움이 됨을 비유



십벌지목(十伐之木): 열 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뜻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를 이루지 못하다. 즉, 말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음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함 또는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꾀함

결자해지(結者解之):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곧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

금석맹약(金石盟約): 쇠와 돌같이 굳게 맹세하여 맺은 약속

멸사봉공(滅私奉公):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함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늘 책을 가까이하여 학문을 열심히 함

격세지감(隔世之感): 아주 바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또는 딴 세대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비유

와신상담(臥薪嘗膽): 쉼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뎌 이르는 말

간담상조(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어 봄. 즉 서로 마음속을 드러내며 나누는 우정

풍비박산(風飛雹散): 엉망으로 깨어져 사방으로 흩어짐

선공후사(先公後私): 사보다 공을 앞세움이란 뜻으로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움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한 것

흥진비래(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미워하면서도 공통의 어려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

거안제미(舉案齊眉): ‘밥상을 눈썹 높이로 들어 공손히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누대와 넓은 집’이라는 뜻으로, 크고도 좋은 집을 이르는 말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

금과옥조(金科玉條):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규칙이나 교훈

기사회생(起死回生): 죽거나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힘을 내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

독수공방(獨守空房): 부부가 서로 별거하여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지냄을 뜻함

동병상련(同病相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도움

만시지탄(晩時之歎): 때늦은 탄식. 이미 기회를 잃은 후 한탄하는 모습.

명재경각(命在頃刻):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 즉 목숨이 눈 깜짝할 동안에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백중지세(伯仲之勢): 우열의 차이가 없이 엇비슷함을 이르는 말

살신성인(殺身成仁):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 도리를 행함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에 있어서의吉凶禍福(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

수간모옥(數間茅屋): 두서너 칸밖에 안 되는 떠집(떠풀로 지은 집). 오두막집

안빈낙도(安貧樂道):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도를 즐김

우공이산(愚公移山):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즉 결코 변하지 않을 충성되고 참된 마음.

임기응변(臨機應變): '어떤 일을 당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변통하다'라는 뜻으로,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

자강불식(自強不息): 스스로 힘을 쓰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함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신이 감수함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되레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조삼모사(朝三暮四):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으로, 당장의 차이에 신경 쓰지만 결과는 매한가지라는 뜻

지인지감(知人之鑑):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

천신만고(千辛萬苦):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천촌만락(千村萬落): 수많은 촌락

풍월주인(風月主人):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등의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이르는 말

형우제공(兄友弟恭): 형제끼리 우애가 깊음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

동의대 스쿨